추수와 수륙재, 그리고 나눔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한 해 농사 잘 마쳤음을 감사하며,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시제(時祭)이고 천신제(薦新祭)로 사계절의 가운데 달 보름날에 주로 올리는 사시제(四時祭)로 발전하였다. 이 같은 모습은 동서양의 문화권에 비슷하게 나타나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추수의 계절 가을에 주로 열리는 수륙재는 사시제나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일까. 그 각각의 본질과 상관없이 제사나 공양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사나 공양을 통해 신불(神佛)이나 조상님께 한 해 농사를 원만히 마무리하였음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나 초청 대상이 천지신명이나 조상님께 한정되는 듯한 양상으로 진행되면 수륙재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하기 어렵다. 육도에서 고통받는 사생(四生)을 구제하는 것이 수륙회의 목적인데, 수륙재의 초청 대상이 지나칠 정도로 신불이나 조상신 또는 고혼(孤魂) 등 비인(非人)에 치우치면 수륙재의 본래 목적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받는 육도사생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있겠으나,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구제가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부 수륙재에서 다슬기를 방생(放生)하거나 관내의 불우이웃이나 고독한 노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수륙재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수륙재 원래 명칭은 '무차대회'
승속 구별없이 음식 나눔 기인
秋수륙재, 대동제로 열어보길

수륙재의 원 명칭은 무차대회(無遮大會)이다. 스님이나 속인을 구별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는 재회(齋會)라는 뜻이다. 이를 '의식'이라고 주로 이해하나 재회는 음식을 승가에 올리는 모임이다. 음식을 베풀면 공덕이 큰데, 그중에서도 착한 사람, 착한 사람보다 출가자, 스님보다 아라한, 아라한보다 깨침을 얻은 붓다께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을 청해 공양을 올리는데, 재회 가운데 가장 큰 의례가 수륙재이다.

수륙재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자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희사해서 연다. 수륙재의 핵심적인 부분인 음식을 베푸는 시식(施食) 의식은 아난존자가 '자신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아귀에게 시식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수륙재의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예전의 수륙재는 국가적인 의례로서 국왕 등 왕후장상이 재주로 참여하여 열었는데, 이때의 소원은 '국왕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 등을 위해'서이고 신불과 무주고혼 등에게 제사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해서 후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해 배고파 떠도는 고혼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수륙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수륙재의 핵심은 음식 나눔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도, 현대는 음식을 나눠주는 재회의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추수의 계절 가을에는 어떤 수륙재가 열려야 할까. 고통 받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개최한다는 수륙재 본래 목적을 살려서, 현재의 제사나 공양 같은 의식은 최소화하고, 외롭고 힘든 산 자들의 벗이 되어, 그들과 음식을 나누며 위로하는 축제의 한마당인 대동제로 행해지는 것이 어떨까 한다.

디지털 고립서 벗어나려면…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으로 현대인은 과잉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필두로 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주는 편의성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며 통제하는 디지털 경제의 숨은 원리가 작동한다. 바로 잠금 효과(Lock-in Effect)인데, 디지털 속 인간을 집착과 고립 속에 가두어버리는 자물쇠에 비유할 수 있다.

잠금 효과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선택을 제한해 기존의 것을 계속 구매하는 현상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잠금 효과는 주로 두 가지 요인, 즉 매몰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강화된다.

매몰 비용(Sunk Costs)이란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투자한 시간과 자원이 너무 커서 그 플랫폼을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특정 플랫폼 계정에 많은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친구들을 축적하게 되면, 그 플랫폼을 떠나는 데 따르는 심리적, 시간적 비용이 커져 쉽게 이동할 수 없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는 특정 플랫폼에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용자를 해당 플랫폼에 유인하게 되며, 이는 플랫폼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결국, 매몰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가 결합되어 사용자들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며,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힘든 고착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잉 연결 시대 사는 현대인들
현실감 복구하려는 움직임 커져
마음 성찰로 디지털 고립서 탈출

잠금효과는 단순히 기술적 구속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을 증대시킨다.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소셜미디어는 인간 간의 깊이 있는 관계 형성보다는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상호작용을 부추기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만, 정작 연결과 교류의 결핍에 갇혀 있다.

디지털 세상에 대한 피로감 탓일까.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물성 매력'이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리적인 사물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추구하는 현상이다. 가상세계와 디지털 콘텐츠가 일상화된 시대에 오히려 촉감, 질감, 무게감과 같은 실제 사물의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이다. 디지털로는 접근할 수 없는, 손으로 느끼고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의 매력과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다.

끊임없이 스크린을 보며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현실감을 복원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가 커져가고 있다. 과잉 연결과 디지털 고립이라는 초연결시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된 지금,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잃어간다. 디지털 고립과 집착의 잠금 장치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마음 안을 들여다 볼 때이다.

社 說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출범에 부쳐

'산지승원'으로 발전돼 온 한국의 사찰은 대부분 많은 숲을 갖고 있다. 사찰림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역사가 깊다. 사찰림은 사찰의 풍치 보전과 경제적 운영을 목적으로 활용됐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사찰 소유로 자리 잡게 됐다.

사찰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출범 이후 사찰림 현황을 파악한 뒤, 연구·교육·사업·협력 분야에 걸쳐 사찰림이 가진 전법수행·공익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조망할 계획이다. 또한 △사찰림 실태 조사 및 DB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컨설팅 △사찰림 활용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사찰림 관련 현안은 많다. 당장 사찰림은 사찰 소유의 사유림임에도 공익용 산지로 구분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찰 전각의 보수 등을 이유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령 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춰 사찰림의 수종은 침엽수에서 탄소 저장력이 뛰어난 활엽수림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찰림연구소는 사찰림 정책 방향 수립, 생태적 보전 방안, 교육 및 보건적 활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찰림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문화자원으로 발돋움시키길 기대한다.

정부, 의료계 이제는 손잡을 때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불거진 의정 갈등이 8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종교계가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의료 단체 대표와 만나 의료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지협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은 "정부안에 대하여 상충되는 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검토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계 대표들도 "좋은 중재안을 기대하겠다"고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갈등과 진통을 반복하며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자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항암주사를 맞는 데, 6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예약했던 수술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을 받지 못한다니 이것이 진정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됐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종교계의 중재안이 마련된다면 정부도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나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0월 3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